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HaYoung Jung¹⁺, Hye Sun Joo²

¹ Korean Feminist Counseling Center, 28, Bomun-ro 22-gil, Seongbuk-gu, Seoul, Korea

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BIP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analyze the roles of service providers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vide more evidence-based BIPs. The literature on the effectiveness of BIPs from 1998 (the year the domestic violence laws were passed) to 2017 was reviewed and 13 articles were selected for the systematic review according to the CONSORT2010 checklist. Results show that CBT is frequently utilized in BIPs and offenders are legally obligated to spend the required counseling hours within a given period of time. It is also found that most research designs were not able to build a control group. Discussions based on the review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evidence-based BIPs and programs tailored to fit different sub-types of offenders.

Key words: domestic violence, offender,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 BIP, effectiveness

1. 서론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Bernardi & Day, 2015).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가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폭력행위를 “가정사”로 보는 편견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각 가정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부터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폭력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Kang & Lee, 2008; Goldenson, *et. al.*, 2007). 1983년에는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가정폭력 문제를 쟁점화 하며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Heo & Rakowski, 2014; Cho, 2014; Kang & Lee, 2008). 즉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가정폭력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었다(Jang, 2014).

국가차원의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¹⁾ 상담개

⁺ Corresponding author: HaYoung Jung, Tel. +82-2-953-1704, e-mail, hayoung.jung@yahoo.com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정의되는 “가정폭력 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입은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으로 통칭)이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법률 발효 이후 1999년 3월 경기도 수원 보호관찰소에서 최초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Kwon & Chun, 2001),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복권기금을 통해 전국적으로 행위자 교정치료 위탁 상담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Kang & Lee, 2008). 이와 같이 가정폭력방지에 명시된 상담위탁 처분, 보호관찰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행위자 변화를 시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의 상담위탁 기관 중 50%가 넘는 약 120개의 기관에서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하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 가정폭력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국내외 동향
국제적으로 가정폭력이 국가정책차원에서 조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다. 미국에 이어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서양 국가에서는 가정폭력 법률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와 남미 또한 정책의 변화를 시행하였다. 가정폭력 개입국가들은 주로 폭력 관련법률 이행 및 피해자 쉼터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국가 지원비용이 적은 국가일수록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시행률은 적었다(Hamel, 2016).

서구사회는 “원래” 가정폭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다루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서구사회 역시 가정폭력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며 피해자에게도 폭력책임을 전가하는 통념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다(Heo, 2014; Jang, 2014). 이런 통념 속에서 미국 행위자 상담은 피해자를 변호하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실행되기 시작되었고 여성주의 입장을 가진 Duluth Model은 오늘날 법원처분 행위자 공식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Cannon, *et. al.*, 2016). 하지만 Duluth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적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

는 상담소, 법원, 경찰, 사회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협력 사례관리 팀을 구성하여 가정폭력 근절을 시도하는 지역체계반응의 변화가 있다(Barner & Carney, 2011). 호주는 1970년대에 여성주의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1974년에 첫 여성 쉼터가 생겼다. 이후 미디어 캠페인 등을 통해 ‘가정폭력은 범죄다’라는 메시지를 드러냈으며 1980년대에는 쉼터의 수가 100개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폭력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을 다루는 동시에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능동적으로 피해자의 역할을 수용하는 “both/and” 이론을 택하고 있다(Brown & James, 2014). 즉 주로 여성주의 패러다임 내에서만 이해되던 가정폭력 근절이 다양한 패러다임을 통해 새롭게 각광받는 추세다(Stith, *et. al.*, 2012; Kwon & Chun, 2001).

가정폭력의 국가개입은 비(非)서구국가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2년 UN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 총 21개의 국가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방지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는 아프리카 국가의 50%도 안 되는 수치이며 실제로 많은 인구가 도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떨어졌다. 가정폭력은 빈곤 및 HIV 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은 시급하다. 이런 이유로 아프리카 국가는 서양국가보다 지역개입과 지역체계관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McCloskey, *et. al.*, 2016). 남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은 뿌리 깊은 성차별 개념과 종교관련 신념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적(gang) 범죄행위와 가정폭력이 결부되어 행위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안전보장의 중요성이 쟁점화 되었다(Santovena & Silva, 2016).

국내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46%, 개별상담 27%, 부부집단상담 11%(Chang, 2013)로 구성되고 한국형 개입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발전하였다(Kwon & Chun, 2001). 대표적인 가정폭력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 매뉴얼은 여성주의 관점 및 인지행동치료에 기반을 둔 매뉴얼로 여성가족부가 소개한 ‘가정폭력

말한다. 본고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와 행위자를 함께 사용할 것이다.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실무자 매뉴얼'(2003)²⁾ 및 '가정폭력 여성 행위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실무자 매뉴얼'(2015)³⁾, 법무부가 소개한 '가정폭력 수감명령 전문 프로그램'(2010, 2012 개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소개한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상담 매뉴얼'(2007)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가 소개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가이드: 상담자용'(2007) 등이 있다(Jeong & Sohn, 2013).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은 주로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며 이때 상담소, 보호관찰소, 법원, 경찰서 등 기관간의 의사소통이 행위자 상담처분 이행을 돕는다.

2.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의 필요성

행위자의 폭력중단을 위해서는 집단 개입 프로그램이 행위자 개별상담 뿐 아니라 구치소 수감 및 집행유예보다 더 효과적이다(Boots, *et. al.*, 2016).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여성주의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은 여성단체 전문가들의 제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현장 전문가의 역량, 영향력 및 전문성은 프로그램 개발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자원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근거 기반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Cannon, *et. al.*, 2016) 각 개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려우며(Akoensi, *et. al.*, 2012) 각 프로그램의 활용도 및 적용 역량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효과성 또한 상이하게 나타난다(Radatz & Wright, 2016; Day, *et. al.*, 2009).

가정폭력 행위자가 균일집단이 아님은 반복적으로 증명되며(Rode & Marganski, 2014) 행위자를 단일대상으로 인식하고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집단 효과가 저하된다는 지적도 있다(Bernardi & Day, 2015).

일례로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는 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성별 권력구조뿐 아니라 인종간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은 소수자의 중도하차 및 고립으로 이어진다(Waller, 2016). 또한 국내에는 여성 행위자 수가 증가하는데 여성 집단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개입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Chang, *et. al.*, 2014; Cannon, *et. al.*, 2016). 다양한 행위자 하위유형에 단일한 개입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을 때 일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Bernardi & Day, 2015; Cameranesi, 2014; Akoensi, *et. al.*, 2012) 사회문화 경제적 차이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적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 연구는 더 필요한 실정이다(Espinoza & Warner, 2016).

Holtzworth-Munroe는 연구팀과 함께 1994년, 2000년, 2004년에 걸쳐 행위자를 가족특수 행위자(FO, family-only batterer), 경계선 행위자(DB, dysphoric or borderline), 낮은 수위 반사회성 행위자(LLA, low-level antisocial), 그리고 일반적 반사회성 행위자(GVA, generally violent and antisocial)로 구분하였다(Holtzworth-Munroe & Meehan, 2004). Kelly & Johnson은 행위자를 "coercive controlling violence" (행위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유형, "violence resistance" (행위자의 폭력행위를 중단시키고 맞서기 위한 폭력으로, 흔히 정당방위라 불리는 폭력을 휘두르는) 유형, 그리고 "situational couple violence" 또는 "common couple violence" (특정상황에서만 폭력행위를 하는) 유형으로 나누었다(Johnson, 2008; Bernardi & Day, 2015).

행위자 하위유형에 맞춘 개입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중도하차를 막고

2)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060100-200300003&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D%96%89%EC%9C%84%EC%9E%90&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

3)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pageIndex=1&research_id=1382000-201500035&leftMenuLevel=160&cond_research_name=%ED%96%89%EC%9C%84%EC%9E%90&cond_research_start_date=&cond_research_end_date=&pageUnit=10&cond_order=3

가정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는 주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Waller, 2016; Oliver, *et. al.*, 2011; Cameranesi, 2014; Fowler, *et. al.*, 2016). 행위자의 사회문화경제적 수준에 따라 중도하차율은 다르고(Cuevas & Bui, 2016) 중도하차의 이유로는 개입방법, 개입장소, 참여자의 성향 등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또한 행위자의 인종적 특징, 범죄경력, 성격성향, 심리학적 어려움 등 개별적인 요소가 있다(Oliver, *et. al.*, 2011; Bernardi & Day, 2015). 그러므로 행위자의 중도하차를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위유형에 따라 개입 프로그램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Cuevas & Bui, 2016). 현재 국내의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 실행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개입 효과성은 불분명하며 폭력의 통계적인 수치는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국내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 유형 및 효과성의 체계적인 분석, 2)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근거기반 개입을 위해 앞으로 상담소, 정부기관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국내 가정폭력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동향과 특성을 검토해보고자 해당 자료를 검색하고 연구주제 및 기준에 준하는 문헌을 추렸다. 국내 데이터베이스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이하 R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이하 KISS) 및 DBpia-를 선정하여 연구주제 핵심어를 검색하였다. 1차적으로 핵심어를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⁴⁾ 등 국내 행위자 프로그램의 정식명칭으로 선정한 결과 1~2건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이 점을 고려하여 2차적으로는 보다 넓은 범위의 핵심어를 선정하였다. 국내 행위자 프로그램이 1998년 가정폭력방지

법 시행 이후 체계적으로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출판기간은 1998년~2017년으로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국내학술지 범위 내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and 집단”, “가정폭력 행위자 and 집단”, “가정폭력 가해자 and 프로그램”, “가정폭력 행위자 and 프로그램”, “가정폭력 가해자 and 효과”, 그리고 “가정폭력 행위자 and 효과”, 총 6개의 핵심어 조합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350개의 자료가 검색 되었다. 이중 중복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대안 포함기준과 제한기준을 정하여 자료를 추렸다. KCI 등재 이상 범위에서 1) 해당 연구를 위해 행위자 집단 개입 프로그램 진행, 2) 집단 개입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한 자료 18편을 선정하였다. 이중 1) 해당 연구의 집단 개입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2) 효과성 측정을 위해 경험적 연구 설계방법을 사용한 자료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질적 연구방법만을 사용한 자료 3편 및 해당 연구를 위한 대상자 모집이 되지 않은 2편의 연구를 제외하고 최종 13편의 문헌을 비교 분석하기로 확정하였다. 최종 13편의 문헌은 2001년~2014년 사이에 발행되었고 8편은 사회복지학회지, 2편은 상담학회지, 2편은 간호학회지, 그리고 1편은 교정관련 학회지에 실렸다.

2. 분석 유목

본 연구에서는 13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해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2010(이하 CONSORT)⁵⁾의 기준표를 채택하였다. CONSORT(2010)는 “무작위 임상시험(이하 RCT) 보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보고지침이다. RCT는 편향된 결과를 최소화하여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다. CONSORT는 RCT 연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소들을 점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연구자와 독자에게 유용한 안내 역할을 하는 도구다. 총 6개 “대주제”⁶⁾, 25개 “소주제”,

4) 2003년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가정폭력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

5) <http://www.consort-statement.org/>

그리고 37개 “점검항목”으로 구성된 CONSORT는 현재 대표적인 RCT 평가방식이다. 국제적으로 400개 이상의 학술지가 CONSORT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 틀로 사용되고 있다 (Moher, *et. al.*, 2010; Lee, *et. al.*, 2014). 본 연구는 CONSORT의 세 번째 대주제 “방법”에 포함되는 10개의 소주제, 17개의 항목에 근거하여 13편의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행위자 집단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CONSORT <Table 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험설계 항목(3a)은 실험의 종류 및 전체적인 이론적 틀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다. 실험설계변경 항목(3b)은 실험착수 이후 어떠한 이유에서든 초기 실험설계가 변형되는 것을 확인한다. 실험설계는 연구비용 부족, 대상자 모집 미달 등 현실적인 이유로 개편될 수 있으며 이는 실험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체화해야 한다. 참가자 적격기준 항목(4a)은 실험 일반화 가능성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실험조건 항목(4b)은 자료수집 조건과 장소를 포함하며 실험 일반화 가능성 및 적용 가능성의 기준점이 된다. 본 항목을 통해 독자는 특정 연구개입방법이 독자의 실험환경에서도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추정해볼 수 있다. 개입 항목(5)은 실험설계 재현이 가능하도록 주요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한다. 이때 실험집단뿐 아니라 통제집단 개입방법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제집단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보고보다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결과 항목(6a)에 명시되는 ‘일차적 결과’는 연구의 주목적에 상응하는 실험결과이며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이외의 모든 결과는 ‘이차적 결과’이며 이는 예상치 못하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포함한다. 결과변경 항목(6b)은 실험결과의 평가방법 혹은 실험결과 자체에 대한 변경을 설명하는 항목이다. 이때 반드시 변경항목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대상수 항목(7a)은 실험 대상수가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근거에 의

거하여 계획되고 임상적 의의와 통계 검증력을 고려하여 설계됨을 확인한다. 중간평가 중단기준 항목(7b)은 실험이 윤리적인 이유로 조기중단 되거나 중간평가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기준항목이다.

8항목부터 10항목까지는 무작위배정서열에 대한 항목이다. 무작위배정서열생성 항목(8a)은 무작위배정서열생성 과정 및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이며 이를 통하여 독자는 연구의 편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무작위배정서열생성유형 항목(8b)은 무작위배정방법의 종류가 집단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은 집단일수록 검증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 지정을 하는 등의 추가적인 설계가 유용할 수 있다. 은폐방법 항목(9)은 무작위배정서열을 시행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이 과정 중에 대상자 집단배치과정에서 선택 편의를 예방하기 위해 서열관련 정보를 철저히 은폐했는지를 확인한다. 집단배치를 하는 주체의 편견이 무작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밟는 단계다. 무작위배정실행 항목(10)은 무작위배정서열을 생성하는 주체, 참가자를 등록하는 주체, 그리고 참가자를 개입에 배정하는 주체, 무작위배정 서열생성, 참가자 등록, 참가자 개입 배정을 한 주체를 명시하며 가능하면 각 단계 진행 주체가 상이한 것이 이상적이다. 눈가림 항목(11a)은 개입이 시작된 이후 편향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개입방법 및 의도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다. 유사개입 항목(11b)은 눈가림개입방법을 위해 사용된 유사 개입방법들에 대한 설명을 한다. 통계방법 항목(12a)은 집합된 데이터가 어떠한 통계적 방법으로 검증되었는지 구체화한다. 추가통계방법 항목(12b)은 하위군 분석과 같이 추가적 분석 처리 및 결과를 나타낸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은 총 2인의 심리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다. 1차 분석은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로 가정 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및 타상담소에서 4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진행하였다. 이후 2차 분석 및

감수는 다년간 트라우마 연구와 실무 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 교수 1인이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I. 연구결과

CONSORT의 방법론 <Table 2>를 보면 항목 중 5개의 항목인 실험설계(3a), 참가자(4a), 개입(5), 결과(6a), 통계적 방법(12a)은 13편 모두 기술하였고 참가자(4b)항목은 1편을 제외한 12편 모두 기술하였음을 볼 수 있다(Kang & Lee, 2008). 10개의 항목인 실험설계(3b), 방법(6b), 대상수(7a, 7b), 무작위배정서열생성(8a, 8b), 은폐방법(9), 시행(10), 눈가림(11a, 11b)은 자료에 전혀 포함되지 않으며 통계적 방법(12b)은 1편에 기술되어 있다(Chang, 2005). 즉 17개 항목 중 6개 항목(35%)은 균등하게 기술되었고 11개 항목(65%)은

기술 정도가 매우 적다.

실험설계 항목(3a). 7편(54%)은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법 그리고 6편(46%)은 비동일통제집단설계법을 적용하였다.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법을 활용한 7편 중 3편은 하나의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설계법을 적용했으며, 4편은 2개 이상의 행위자 집단에 대한 사전사후 설계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대상자 연령은 20대~60대다.

참가자 항목(4). 13편(100%) 모두 남성 행위자 대상이 참여하며 이중 9편(69%)은 남성만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13편 중 먼저 출판된 6개 자료는 모두 남성 행위자만 대상에 포함되고 2006년(Kim, 2006)에 처음으로 여성 행위자 대상이 참여하였다. 총 2편(15%)에 여성 행위자가 대상으로 남성과 함께 포함되었다. 4편(31%)에는 '부부' 대상자, 2편(15%)에는 알코올 문제보유 대상을 명시하였다. 대상자의 법률적 상담이행 의무사

Table 1. CONSORT 2010 Checklist of Information to Include

Section/Topic	Item No	Checklist Item
Trial Design	3a	Description of trial design (such as parallel, factorial) including allocation ratio
	3b	Important changes to methods after trial commencement (such as eligibility criteria), with reasons
Participants	4a	Eligibility criteria for participants
	4b	Settings and locations where the data were collected
Interventions	5	The interventions for each group with sufficient details to allow replication, including how and when they were actually administered
Outcomes	6a	Completely defined pre-specified primary and secondary outcome measures, including how and when they were assessed
	6b	Any changes to trial outcomes after the trial commenced, with reasons
Sample Size	7a	How sample size was determined
	7b	When applicable, explanation of any interim analyses and stopping guidelines
Randomisation: Sequence Generation	8a	Method used to generate the random allocation sequence
	8b	Type of randomisation; details of any restriction (such as blocking and block size)
Allocation Concealment Mechanism	9	Mechanism used to implement the random allocation sequence (such as sequentially numbered containers), describing any steps taken to conceal the sequence until interventions were assigned
Implementation	10	Who generated the random allocation sequence, who enrolled participants, and who assigned participants to interventions
Blinding	11a	If done, who was blinded after assignment to interventions (for example, participants, care providers, those assessing outcomes) and how
	11b	If relevant, description of the similarity of interventions
Statistical Methods	12a	Statistical methods used to compare groups for primary and secondary outcomes
	12b	Methods for additional analyses, such as subgroup analyses and adjusted analyses

※ Source: Moher, et. al.(2010). <http://www.consort-statement.org/>

Table 2. CONSORT 2010 Checklist: Effectiveness of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BIP) (2001-2014)

	Trial Design 3a	Participants 4a	Participants 4b	Interventions 5	Outcomes 6a (Assessment tool, Assessment period, Outcomes)
Kwon & Chun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 ExG(n=10) (Age: 34-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 Offenders • Court-Orde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bation Office • 2 Facilit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T, Communication Skills & Partner Violence Integrated Program • Weekly, 12(2,5hr)sessions, total 30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E, CTS(+Session Recordings) • Sig(+) Self-esteem P=0,35*, P<.05
Yoo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ExG(n=6) • ComG(n=6) (Age:35-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 Offenders • Court-Ordered • Exclusion Criteria: Withdrawal symptoms, severe mental impair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seling Center • 2 Facilit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ge of Change Model/Stress Management Integrated Program • ExG: Alcohol Intervention / ComG: No alcohol intervention • Every 2 Weeks, 6(120min)Sessions, total12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rean AUDIT, NAST-I, RTC, APCS, GARSS, SCL-90-R • Sig(+) ExG: Stages of change, use of cognitive emotional skills / ComG: Somatization symptoms Sig(-) ExG: Perceived stress, somatization symptoms
Kim & Kim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ltiple Group Pre/Post -test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 ExG1-4(n1=10, n2=9, n3=13, n4=15) (Age Average: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 Offenders • Court-Orde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bation Office • 2 Facilit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T, Feminist Therapy, Communication Skills & Family Systems Theory Integrated Program • Bi-weekly, 8(4hr)Sessions, total 32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S2, RSES, SCL-90-R, MCI, MSS, Wife Beating Scale • Sig(+) Marital Satisfaction/Communication, Self-esteem Sig(-) Violent Behavior, Hostility p<.001
Jang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ExG (n=14) • ComG (n=13) (Age Average:43&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 Offenders • Court-Ordered • Exclusion Criteria: AUDIT resul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bation Office • 1 Facilit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 & CBT Integrated Program • ExG: Alcohol and DV Programs ComG: DV Program • 6 Weeks, total 48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DIT, CTS(+Content Analysis) • Pretest, Posttest, 3-month Posttest • Sig(-) ExG: Drinking Problems, Violent Behavior ComG(3-mn Posttest): Violent Behavior
Seo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ExG(4 Couples) • ComG(4 Couples) (Age:36-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 Offenders +Spouses • Court-Orde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seling Center • 1 Facilit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7 Satir's Growth Model Integrated Couples Group Program • ExG: Couples Group Therapy • Weekly, 8(3hr)Sessions, total 20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I, DAS(+typing of session) • Sig(+) ExG: Self-esteem, Marital Relationship Sig(x) ComG: Self-esteem, Marital Relationship
Chang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ltiple Group Pre/Post -test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 ExG1-5(n=50)(Age:2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 Offenders • Court-Orde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bation Office • 1 Facilit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T & Feminist Integrated Group Program • Bi-weekly, 15(3hr)Sessions, total 45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fenders: CTS2, NAI, RSES, SRA, IBWB, MAST • Spouses: Pre/post Interview, Report of Spousal Violence(42% Reponse Rate) • 12-months Post-program: Criminal Record Checkup • Sig(-) Physical/Psychological Violence / Sig(x): Anger Level
Kim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ultiple group pre/post-test design • ExG1(n=10), ExG2(n=11), ExG3(7Couples) (Age:30s-50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Female Offenders +Spouses • Pre-Trial Diver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seling Center • 2 Facilit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T Integrated Offender Group Therapy Program • Weekly, 16(3hr)Session, total 48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DI, RSES, BPAQ, CTS2, Satir Styles of Conversation, FACE-III, Patriarchal Gender Roles • Sig(+) ExG3: Self-esteem, Communication/Conflict Control Sig(-) ExG3: Depression
Hyun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ExG(4 Couples) • ComG(5 Couples) (Age: 34~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 Offenders +Spouses • Pre-Trial Diversion • Exclusion Criteria: Severe Viol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seling Center • 2 Facilit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T & Couples Group Integrated Program • ExG: Couples Group Treatment, Post-group Session ComG: No Intervention • Weekly, 10(2hr)sessions, total 20hr, 3 Monthly Post-group Ses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S2, Relational Scale, DAS¹ • Posttest 3-month, Posttest 9-month • Sig(+) ExG: Marital Satisfaction Sig(x) ExG: Dyadic Adjustment Sig(-) ExG: Level of Violence
Kang & Lee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 ExG(n=12) • ComG1(n=12) • ComG2(n=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 Offenders • Court-Ordere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mily Violence Correc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 ExG: Group Therapy ComG1: Individual Therapy ComG2: No Intervention • Weekly, 16(ExG:2hr/ComG1:50min)sessions, total 16hr(ComG1)/32hr(Ex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TS2, AQS, BPAQ, RSES • Sig(+) Rational Behavior, Self-Esteem(ExG=ComG1) Sig(-) Physical Aggression, Hostility(ExG)ComG1, Verbal Aggression(ExG=ComG1)
Choi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 ExG(14 Couples) (Age Average: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Female Offenders +Spouses • Court-Orde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seling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T & Reality Therapy Integrated Program • Weekly, 12 Sess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Q, Ability to Manage Conflict Scale, LES • Sig(+) Communication/Conflict Management, Spouses: Stress Management

Hyun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 Group Pre/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 ExG1(n=7) • ExG2(n=5) (Age:30s-50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 Offenders • Pre-Trial Diver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Facilit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T • Weekly, 8(3hr)Sessions, total 24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SES, BDI-II, KGES, Violence Acceptance Scale • Sig(+) Self-esteem, Gender Role Attitude • Sig(x) Depression, Violent Tendencies
Hyun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 Group Pre/Posttest Quasiexperimental Design • ExG1(n=7) • ExG2(n=7) (Age:30s-50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Female Offenders • Pre-Trial Diver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Facilit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ych-dynamic, Social • Weekly, 8(3hr)Sessions, total 24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SES, TAS, WCCL, FPSC • Sig(+) Self-esteem, Communication
Cho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 ExG(n=10)(Age:2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le Offenders • Court-Orde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bation Office • 2 Facilit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L & CBT Integrated Program • Bi-weekly, 16(3hr)Sessions, total 50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S² • Sig(+) Recognition of Violent Behavior, Positive Change of Irrational Beliefs

※ Experimental Group: ExG, Comparative Group: ComG, Sig(+)=Significant Increase, Sig(x)=Non-Significant, Sig(-)=Significant Decrease
 ※ Source: ISE=Index of Self-Esteem(Lee & Yang, 1996), CTS=Conflict Tactics Scales(Straus, 1979),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Straus, 1996),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Babor & Grant, 1989), Korean-AUDIT(Kim, 1999), NAST I=Alcoholism Screening Test of Seoul National Mental Hospital(Kim, et al., 1991), RTC=Readiness to Change(Rollnick, et al., 1992), APCS=Alcohol Processes of Change Scale(Yoo, 2000), GARSS=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Scale(Koh, 1988), SCL-90-R=Symptoms Checklist-90-Revision(Kim, et al., 1989; Derogatis, 1977), RSES=Rosenberg Self-Esteem Scale(Rosenberg, 1965), MCI=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Benvenu, 1970), MSS=Marital Satisfaction Scale(Roach, et al., 1981), Wife Beating Scale(Kim, 1984), SEI=Self-Esteem Inventory(Kang, 1986; Coopersmith, 1967), DAS'=Dyadic Adjustment Scale(Choi, 1997; Yoon, 1997; Lee & Kim, 1996; Spanier, 1976), NAI=Novaco Anger Index(Novaco, 1975), SRA=Sex Role Attitude(Osmond & Martin, 1975), IBWB=Inventory of Beliefs about Wife Beating(Saunders, et al., 1987), MAST=Michigan Alcohol Screening Test(Selzer, et al., 1975), BDI=Beck Depression Inventory(Beck, 1967), BDI-II=Beck Depression Inventory-II(Beck, et al., 1996), BPAQ=Buss-Perry Aggression Questionnaire(Buss & Perry, 1992), Satir Styles of Conversation(Kim, 2000), FACE-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Olson, et al., 1985), Patriarchal Gender Roles(Kong, 1997; Kong & Park, 1998; Yoon & Choi, 1999), Relational Scale(Chang, 2003; Roach, 1981), CPQ=Communication Pattern Questionnaire(Lee & Lee, 2000; Christensen & Sullaway, 1984), Ability to Manage Conflict Scale(Choi, 1994; Kim & Choi, 1992; Song, 1990), LES=Life Experience Survey(Lee, 1993; Saranson, et al., 1978), KGES=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Violence Acceptance Scale(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2), TAS=Trait Anger Scale(Spielberger, 1983), WCCL=Ways of Coping Checklist(Lazarus & Folkman, 1984), FPSC=Famil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Thompson & Mccubbin 1996), DAS²=Dysfunctional Attitudes Scale(Weissman, 1979; Weissman & Beck, 1978), Stage of Change Model(Connors, et al., 2001), PBL=Problem Based Learning(Barrows & Tamblyn, 1980)

항도 명시되었다. 5편(38%)은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 4편(31%)은 상담처분 대상자, 그리고 4편(31%)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가 참여하였다. 5편(38%)의 개입은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졌고, 5편(38%)의 개입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3편(23%)의 문헌은 개입장소를 명시하지 않았다. 개입집행의 54%는 2명 이상의 공동 진행자가 진행하였으며, 명시된 진행자 자격조건으로는 알코올 전문상담가, 사회 복지사, 가정폭력 상담사, 심리학 석·박사 등 각 연구마다 상이하였다. 1편(8%)의 연구는 중도하차 3명-사후평가 결석 1명, 수강명령 시간 이수 2명-을 소개하였다(Cho, 2014).

개입 항목(5). 11편(85%)은 인지행동에 기반을 둔 개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인지행동 기반 집단개입으로는 주로 인지적 재구조화, 폭력에 대한 교육, 의사소통기술, 행동주의 기법, 역할극 지원, 분노조절 기법, 갈등해결훈련 등 구조화 수준이 높은 심리집단이 사용되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행

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실무자 매뉴얼'을 활용한 2편(15%, Kang & Lee; 2008; Chang, 2005)을 제외한 11편은 모두 다른 개입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집단 참여 시간은 12시간~50시간이었고 8편(62%)은 주 1회, 3편(23%)은 주 2회, 1편(8%)은 격주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1편(8%)은 진행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결과 항목(6a). 13편(100%) 모두 사전사후 평가법을 사용했으며 3편(23%)은 개입 중단 후 3개월, 9개월, 12개월 시점에서 추후평가를 하였다. 사전사후 평가도구 조합은 연구마다 달랐으며 총 13편의 문헌에 38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갈등척도(Straus, 1979, 1996)의 원판과 개정판이 7편(54%)의 문헌에서 가장 많이 쓰였고 이어서 자존감척도(Rosenberg, 1965)가 6편(46%)의 문헌, 우울척도 원판과 개정판(Beck, 1967; Beck, et al., 1996), AUDIT알코올척도 개정판과 한국판(Kim, 1999; Babor & Grant, 1989), 및 간이정신진단검사(Kim, et al., 1989; Derogatis, 1977)는 각각 2편(15%)의 문헌에 활용되었다. 즉 38개의 측정도

구 중 한 번씩만 사용된 도구가 30개(79%)며, 원판 개 정판을 분리하여 보는 경우, 총 38개 검사 중 89%인 34개가 단 하나의 문헌에서만 사용되었다. 질적연구방 법을 겸하여 활용한 2편(23%), 추후평가로 배우자로부터 유선 상 평가결과를 받은 1편(8%)을 제외한 10편 (77%)의 문헌은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만을 활용하여 효 과성에 대한 결과를 집합하였다. 아내의 보고를 유선 상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 사전평가 시 행위자는 배우 자에 비해 신체적 폭력 정도를 축소 보고하였으며 사후 평가에는 배우자가 더 낮은 신체폭력 결과와 더 높은 정서적인 폭력 결과를 나타냈다(Chang, 2005). 개입결 과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집단의 효과를 나타낸 5편 (38%)의 문헌은 실험집단의 목표효과가 높게 나타났음 을 볼 수 있었다.

통계적 방법 항목(12a). 모든 연구에는 집단 대상수 가 한정되어 있고 단일집단 사전사후 평가를 공통적으 로 했기 때문에 효과성 검증에는 사전사후 값을 비교하 는 Paired t-test와 비모수검정법인 Mann-Whitney U test 혹은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 test를 주 분석법으로 사용하였다. 주로 비모수 통계방법 을 사용한 이유는, 일반적인 t-test를 하기에는 사례수가 적어 정상분포를 가정할 수 없는 집단 개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Hyun, 2007). 이 외에도 집단별 사전사후 평가 의 비교에는 일원 변량 분석을, 사전 검사를 배제한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 일원 공변량분석(ANCOVA)(Kim, 2006; Kang & Lee, 2008)을 사용하였다.

IV. 논의

본 연구의 목표는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관하고 효과적인 행위자 개입 프 로그램을 검토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국내 가정폭력방 지법이 시행된 1998년부터 현재까지 행위자 집단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방법 13편을 CONSORT 점검 표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주로 인 지치료 개입프로그램을 통해 남성 행위자 집단상담이

제공되고 있으며, 행위자는 가정법원 및 검찰청에서 처 분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상담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연구 설계 시 통제집단을 구축하 기 어려웠다. 행위자의 자기보고식 사전사후 검사 결과 폭력행동이 단기적으로는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행위자 개인만 참석한 프로그램보다는 부부단위 로 참석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으며 알코올 문제를 가 진 행위자 대상에게는 일반적인 폭력중단 프로그램보 다는 알코올 개입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 될 때 문제행동 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결과에 따 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은 그 효과성이 보장되도록 근거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연구 결 과, 13편 중 10편에서 채택한 개입 프로그램은 인지행 동 이론에 기반을 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에서 개발하고 배포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 로그램: 실무자 매뉴얼’을 활용한 2개의 집단(Chang, 2005; Kang & Lee, 2008)을 제외하고 11개의 집단은 연구자가 개발하거나 임의로 통합한 개입 프로그램이 었다. 즉 개입의 효과성을 일부 예상할 수는 있겠으나 근거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이 미흡하였다. 근거기 반 프로그램 개발의 중심에는 현장전문가의 임상적인 지식 및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다 견고 한 프로그램이 발전되고 나아가 가정폭력방지법을 통 한 행위자 상담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거기 반 개입에 대한 대화가 이어져야겠다.

둘째, 프로그램 개입 효과성에 대하여 보다 균형 잡 힌 타당한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가정폭력방지법 상 행위자는 프 로그램 참여 불이행 시 추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특 수한 상황(Hyun, 2007; Kim, 2006; Kang & Lee, 2008; Hyun, 2008)이며 처분연장을 예방하기 위해 폭 력행위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피해자의 보고 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하여 행위자 폭력을 축소하여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Kim, *et. al.*, 2011). 즉 행위자 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입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13편의 문헌 모두 자기보고식 사전사후 평가를 통하여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였고 그 효과성의 타당도에 대해서 제한점으로 언급하는 연구자도 있었다. 그러므로 집단 제공 기관 뿐 아니라 법원 및 검찰과의 연계를 활용하여 행위자의 범죄기록 등의 공식자료를 활성화하여 행위자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Chang, 2005),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며 폭력보고상황을 받는 방법 등 보다 입체적으로 프로그램 개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각 연구에서 의미 있게 쓰인 측정도구를 행위자 하위집단 선정과 분류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한 발전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3편의 연구에는 38개 이상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으며 이중 한 번만 사용되는 도구는 무려 89%나 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추론해볼 때, 연구주제 항목에 따라 상이한 도구를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Yoo(2002)과 Jang(2004)는 알코올과 폭력을 다루기 위해 AUDIT를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별 증상에 대한 개별 측정도구를 활용하기보다는 하위유형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도구조합(set)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국내 실례로 여성 행위자는 다른 여성 집단과 비교해서 비교적 불안한 애착형성, 외상관련 증상 및 성격관련 병리가 더 많을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Goldenson, *et. al.*, 2007; Carney, *et. al.*, 2007) 여성 행위자 집단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측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보다 촘촘한 효과성 분석을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넷째, 보다 효과적인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시행과 지속 가능한 폭력예방 관리를 위해 지역기관들의 협업 및 팀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Jang, 2014). 특히 개입 제공기관과 치료기관과의 협업(Kwon & Chun, 2001), 알코올 센터(Yoo, 2002),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센터(Kim & Kim 2002) 등의 협력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쌓아 한 명의 행위자에 대한 관리가 면밀하

게 진행되며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1. 제한점 및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문헌 개수가 적다. 이는 행위자 개입의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개관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채택된 13편의 연구는 CONSORT 기준항목을 전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연구설계에 있어서 통제집단의 부재, 단일집단 사전사후 평가 및 자기보고식 평가는 연구 결과에 편향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법원 및 검찰청 의뢰행위자의 수가 불규칙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담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지만(Cho, 2014; Kim, 2006; Choi, 2008; Hyun, 2008)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큰 한계점이다. 특히 대상자 수가 크지 않은 경우, 결과 오류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Goldenson, *et. al.*, 2007). 위 사항들은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위자 집단개입에 대해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데 분명한 한계이며, 본 연구도 문헌 개수 및 문헌 내용의 제한성으로 인한 한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지 20년 된 시점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을 돌아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관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향후 행위자 상담을 향한 디딤돌 하나를 놓은 것이 본 연구의 성과라 생각된다.

2. 제언

국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총체적 수준에서 개입하고 프로그램진행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며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근거기반치료를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행위자의 하위유형의 위험성(risk)과 필요(need)를 파악하고(Radatz & Wright, 2016) 이에 근거를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

로그래의 원래목적이 잘 전달되도록 기관 실무자의 역량강화 등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가 꾸준히 검증되며 이에 따라 수정 보완 되는 것은 기관 또는 개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지속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국내 개입 프로그램 제공 기관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장소, 교육 주체 등을 제공하여 폭력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기관들은 이제껏 활용된 개입 프로그램들이 각 행위자 하위유형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이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겠다. 즉, 기관은 각 하위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위자 중도하차의 비율을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겠으며 이뿐 아니라 각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관찰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의 기관들은 협업기회들을 최대화하여 가정폭력의 근절에 앞장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Jang, 2014).

마지막으로, 상담사 및 현장전문가는 실선에서 개입 프로그램 및 행위자와의 접촉을 가장 긴밀하게 하기 때문에 정부 및 관련기관들과 발맞춰 행위자 폭력 중단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현장전문가가 개입 프로그램에 대해 갖는 전문성과 신뢰도는 행위자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전문가는 적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본래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와 더불어 행위자의 하위유형 및 근거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 또한 주요역할로 보인다.

불과 20년 전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됐다. 본 연구는 지난 정부, 기관, 현장전문가와 연구자의 협업 및 노력의 결과로 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근거기반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해 본 논문 개관 또한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koensi, T. D., J. A. Koehler, F. Losel, and D. K. Humphreys. 2013.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 Programs in Europe, Part II: A Systematic Review of the State of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7(10): 1206-1225.
- Barner, J. R. and M. M. Carney. 2011. Intervention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A Historical Review. *Journal of Family Violence*. 26(3): 235-244.
- Bernardi, J. and A. Day. 2015.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or Subtypes and Their Developmental Origin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36(3): 371-379.
- Boots, D. P., J. Wareham, A. Bartula, and R. Canas. 2016. A Comparison of the Battere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 with Alternative Court Dispositions on 12-Month Recidivism. *Violence Against Women*. 22(9): 1134-1157.
- Brown, J. and K. James. 2014. Therapeutic Responses to Domestic Violence in Australia: A History of Controversi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35(2): 169-184.
- Cameranesi, M. 2016. Battering Typologies, Attachment Insecurity, and Personality Disorders: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8: 29-46.
- Cannon, C., J. Hamel, F. Buttell, and R. J. Ferreira. 2016. A Survey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nd Intervention. *Partner Abuse*. 7(3): 226-276.
- Chang, Hee Suk and Hyun Kak Cho. 2013.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Current Conditions and Suggestions. *Journal of Correction*. 7(1): 191-214.
- Chang, Hee Suk and In Young Hur. 2014. Characteristic of Female Offenders: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Offenders. *Social Work Research*. 45(4) 295-323.
- Chang, Hee Suk. 2005.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Feminist Group Counseling on Reducing Violent Behavior. *Korea Social Work Journal*. 16: 161-186.
- Cho, Mi Sook. 2014. A Study on Impact on Non Rational Thinking

- and Violent Awareness for Family Violence Assailant. *Journal of Correction*. 8(1): 95-116.
- Choi, Woong Yong, Ui Myong Kim, and Jeong Young Oh. 2008. A Research on Impacts of Reality Therapy an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on an Abuser of Domestic Violence and an Victim of Domestic Violence in the Area of Patterns of Communication, Capability of Conflict-Coping and Mechanism of Response to Stres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3): 223-239.
- Cuevas, D. A. and N. H. Bui. 2015. Social Factors Affecting the Completion of a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Family Violence*. 31(1): 95-107.
- Day, A., D. Chung, P. O'Leary, and E. Carson 2009. Programs for Men who Perpetrate Domestic Violence: An Examination of the Issues Underly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vention Progra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3): 203-212.
- Espinoza, R. C. and D. Warner 2016. Where Do We Go from Here?: Examin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by Bringing Male Victims, Female Perpetrators, and Psychological Sciences into the Fold. *Journal of Family Violence*. 31(8): 959-966.
- Fowler, D. R., A. L. Cantos, and S. A. Miller. 2016. Exposure to Violence, Typology, and Recidivism in a Probation Sample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Child Abuse and Neglect*. 159: 66-77.
- Goldenson J., R. Geffner, S. L. Foster, and C. R. Clipson. 2007. Femal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Their Attachment Security, Trauma Symptoms, and Personality Organization. *Violence and Victim*. 22(5): 532-545.
- Hamel, J. 2016.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 Programs Around the World. *Partner Abuse*. 7(3): 223-225.
- Heo, Min Sook and Rakowski C. A. 2014.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a Human Rights Frame in South Korea: Context and Strategizing in the Anti-Domestic Violence Movement. *Violence Against Women*. 20(5): 581-606.
- Holtzworth-Munroe, A. and J. C. Meehan. 2004. Typologies of Men Who Are Maritally Violent: Scientific and Clinical Implica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12): 1369-1389.
- Hyun, Jin Hee. 2007. The Effect of Couples Group Treatment on Domestic Violence: Focused on Follow Up Stud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1(12): 5-34.
- Hyun, Mi Yeul. 2008. The Effect of a Group Therapy for the Offenders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e*. 38(3): 420-427.
- Hyun, Mi Yeul. 2008. The Effect of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for the Offenders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7(2): 109-117.
- Jang, Seung Su. 2014. Study on Preferred Role of Korean Police Force Based on Domestic Violence and Its Response by Police Force in Other Nations. *District Police Research*. 7(4): 3-32.
- Jang, Soo Mi. 2004. Development and Effects on a Program for Decreasing Violent Behaviors of the Spouse Abusers with Drinking Problems: Applying 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1): 103-126.
- Jeong, Yoo Hee and Ye Chul Sohn. 2013. Effectiveness of the Attendance Order Treatment for Family Violence Assailants: Short Term Follow up Recidivism Study.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13(2): 55-79.
- Kang, Eun Hee. and Hyun Rim Lee. 2008. The Effect of Family Violence Correction Group Counseling on Violence Act, Aggression and Self-esteem of the Family Violence Injurers.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13(2): 85-102.
- Kelly, J. B. and M. P. Johnson 2008. Differentiation among Typ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Research Update an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Family Court Review*. 46(3): 476-499.
- Kim, Jae Yop, Kwon Ho Choi, and Yong Eon Chang. 2011. Recidivism of Batterers and Mental Health of Battered Women after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 *Victimology Research*. 19(2): 5-31.
- Kim, Kyeong Shin and Jung Ran Kim. 2002.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tervention Program- Focusing on Wife Abuse. *Korean Family Relations Journal*. 7(1): 137-158.
- Kim, Mi Yea. 2006. Effects of Group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Offenders of Family Viol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3): 519-546.
- Kwon, Jin Sook and Suk Kyoung Choi. 2001. A Study on the Group Intervention for Family Violent Offenders. *Korean*

- Journal of Social Welfare.* 44(3): 36-63.
- Lee, Jun Suh, So Yeon Ahn, Kyoung Ho Lee, and Jee Hyun Kim. 2014. Korean Translation of the CONSORT 2010 Statement: Updated Guidelines for Reporting Parallel Group Randomized Trials. *Epidemiology and Health.* 36: e2014029.
- McCloskey, L. A., F. Boonzaier, S. Y. Steinbrenner, and T. Hunter. 2016. Determinan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Sub-Saharan Africa: A Review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Partner Abuse.* 7(3): 277-315.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Yearly Survey of Domestic Violence.*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4
- Moher, D., S. Hopewell, K. F. Schulz, V. Montori, P. C. Gotzsche, P. J. Devereaux, D. Elbourne, M. Egger, and D. G. Altman. 2010. CONSORT 2010 Explanation and Elaboration: Updated Guidelines for Reporting Parallel Group Randomised Trial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3: e1-e37.
- Oliver, M. E., K. C. Stockdale, and J. S. Wormith. 2011. A Meta-Analysis of Predictors of Offender Treatment Attrition and Its Relationship to Recidivism.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79(1): 6-21.
- Radatz, D. L. and E. M. Wright. 2016. Integrating the 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into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ming: The Case for Moving Toward More Evidence-Based Programming. *Trauma Violence Abuse.* 17(1): 72-87.
- Rode, D. and A. J. Marganski. 2014. Psychopathology of Family Violence Perpetrators: the Personality Categorization of Perpetrators. *Current Issues in Personality Psychology.* 2(2): 103-117.
- Santoveña, E. E. E. and T. da Silva. 2016. Domestic Violence Intervention Programs for Perpetrator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Partner Abuse.* 7(3): 316-352.
- Seo, Hye Seok. 2005. The Study on the Effect of Marital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the Self-esteem and a Marital Couples Enhancing of Domestic Family Violence: Centered on Satir's Theory of Growth Model.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1): 25-41.
- Smith, L. S. and C. S. Stover. 2016. The Moderating Role of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istory of Trauma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Victimization. *Violence Against Women.* 22(6): 745-764.
- Stith, S. M., E. E. McCollum, Y. Amanor-Boadu, and D. Smith. 2012. Systemic Perspectives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Treatment. *Journal of Marital Family Therapy.* 38(1): 220-240.
- Waller, B. 2016. Broken Fixe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Modern and Post-Modern Interventions Utilized to Decrease IPV Perpetration Among Black Males Remanded to Treat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7: 42-49.
- Yoo, Chai Young. 2002. A Study of Effectiveness of Group Program for Domestic Violent Offender's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 85-116.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강은희, 이현립. 2008. 가정폭력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지단상담이 가해자의 폭력행동,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85-102.
- 권진숙, 전석균. 2001.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3): 36-63.
- 김정신, 김정란. 2002.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효과분석: 아내학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137-158.
- 김미애. 2006.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개입 프로그램 효과: 집단 굿어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19-546.
- 김재엽, 최권호, 장용언. 2011.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후 가해 남편의 재폭력과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 실태. *피해자학 연구.* 19(2): 5-31.
- 서혜석. 2005. 자아존중감 및 부부적응 향상을 위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부부집단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1): 25-41.
- 여성가족부. 2017.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4
- 유채영. 2002. 가정폭력 행위자의 문제유증 변화동기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사회복지연구.* 20: 85-116.
- 장수미. 2004. 음주문제를 가진 가정폭력가해자 폭력행동감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56(1): 103-126.
- 장승수. 2014. 각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경찰의 대응에 따른

- 한국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7(4): 3-32.
- 장희숙, 조현각. 2013.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과제. 아시아교정포럼학술지 교정담론. 7(1): 191-214.
- 장희숙, 허인영, 전인지. 2014.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여성의 특성: 가해남성 피해여성과의 비교. 사회복지연구. 45(4): 295-323.
- 장희숙. 2005. 폭력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여성주의 집단상담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6: 161-186.
- 정유희, 손외철. 2013.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단기재범 추적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13(2): 55-79.
- 조미숙. 2014. 폭력행동 현실인식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비합리적 사고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정포럼 학술지. 8(1): 95-116.
- 최응용, 김의명, 오정영. 2008. 현실치료-인지행동 집단프로그램이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의사소통양식, 갈등 해결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3(3): 223-239.
- 현미열. 2008.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통합모델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8(3): 420-427.
- 현미열. 2008.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적용한 인지행동 집단상담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7(2): 109-117.
- 현진희. 2007. 가정폭력 부부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추후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12): 5-34.

Received: Apr. 30, 2017 / Revised: Jun. 5, 2017 / Accepted: Jun. 9, 2017

국내 가정폭력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개관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개관을 하고 보다 효과적인 근거기반 개입을 위해 상담소, 정부기관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행위자 집단상담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자료 13편을 채택하여 CONSORT 점검표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주로 인지행동치료에 근거를 둔 개입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주로 행위자의 자기보고식 사전사후 평가에 의해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위자 개인만 참석한 프로그램보다는 부부단위로 참석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으며 알코올 문제를 가진 행위자에게는 일반적인 폭력 중단 프로그램보다는 알코올 개입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될 때 문제행동이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결과에 따른 논의로는 근거기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프로그램 측정법에 대한 고찰, 그리고 행위자 하위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제어 : 가정폭력, 행위자,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 효과성

Profiles **HaYoung Jung** : She received her M.A. in clinical psychology from Wheaton College IL, USA. She is interested in trauma and crisis counseling and has been working at Korean Feminist Counseling Center(KFCC) with victims and offenders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assault since 2014(hayoung.jung@yahoo.com).

Hye Sun Joo : She i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Seoul, ROK. Her research interests and field of education are in counseling psychology and trauma(healingtrauma@daum.net).